



데이터융복합·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

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sammy.park@consumerinsight.kr
문 의	박승표 이사	연 락 처	02) 6004-7661
배 포 일	2021년 12월 3일(금) 배포	매 수	자료 총 4매

■ 2021년 자동차 기획조사 보도자료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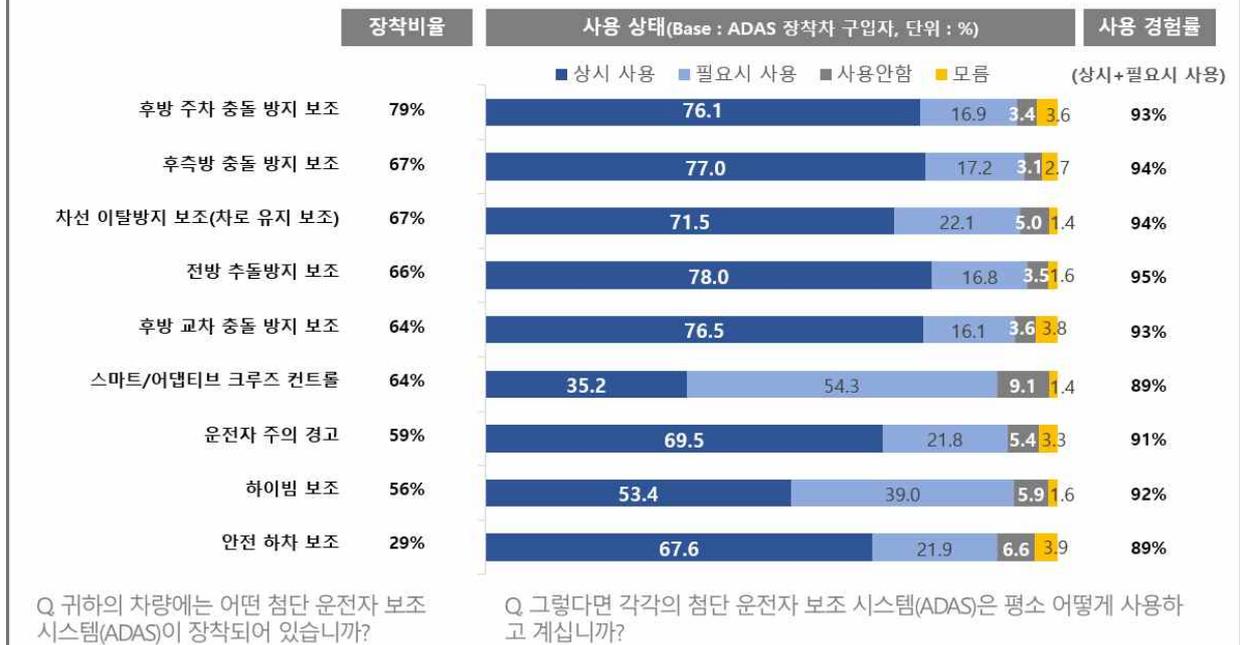
ADAS, 새 차 60%에 있고 90%는 쓰는데 만족도는...

컨슈머인사이트 '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 사용 현황' 비교

- 2~3년 된 신차 최다 장착 기능은 '후방주차 충돌방지'
- '안전하차 보조' 기능은 탑재 비율 29%로 가장 낮아
- 전체 사용 만족도는 57%...운전 편의 기대 못 미친 듯

[그림1]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 장착여부 및 사용경험

[Base : 지난 2~3년 내 새 차 구입자, n=2174명]



최근 2~3년 내 새 차 구입자의 60% 이상이 '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' 기능이 장착돼 있다고 했다. 탑재된 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은 90%를 넘고 특히 전방 추돌

방지 기능은 95% 이상이 사용 경험해 봤을 정도로 일반화됐으나 종합적인 사용 만족률은 57%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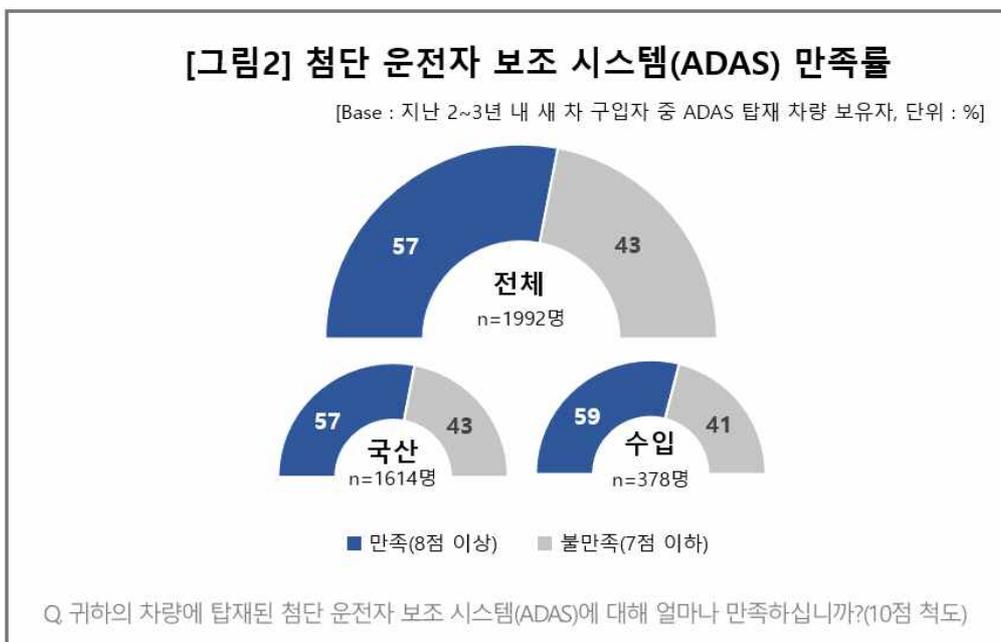
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수행해 온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(매년 7월 약 10만명 대상)'에서 최근 2~3년 사이 새 차 구매자 2714명에게 ADAS 기능 장착 여부를 묻고 사용 현황을 비교했다. ADAS(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)는 운전 중 발생하는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다. 각종 충돌 및 차선이탈 방지 보조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운전자 주의 경고, 하이빔 보조, 안전하차 보조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.

주요 ADAS 기능 장착 비율은 대부분 60%를 넘었다. △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다는 응답이 79%로 가장 높았고 △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△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각각 67%로 뒤를 이었다.

△전방 추돌 방지 보조 △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△스마트/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각각 60%대 중반이었으며 △운전자 주의 경고 △하이빔 보조 기능은 50%대로 비교적 낮았다. 특히 △안전 하차 보조 기능은 29%에 그쳐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 기능은 현대차의 메인 기술로 다른 브랜드에는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.

탑재된 기능의 사용경험(상시+필요시 사용 %)은 대부분 90% 이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상시 사용 비율도 절반 이상이 70%를 넘었다. 한 번 활성화해 놓으면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입되는 기능이다. 그 중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의 사용경험률(95%)과 상시사용률(78%)이 가장 높았다.

반면 스마트/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상시사용률(35.2%)은 다른 기능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는데 이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 시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. 야간 운전 시 주로 선택하는 하이빔 보조 기능의 상시사용률(53.4%)도 비교적 낮았다.



전체 기능에 대한 만족률(10점 척도 중 8점 이상 비율)은 57.0%에 그쳐 비교적 낮았고 원산지별로는 국산차(56.6%)와 수입차(58.7%)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[그림2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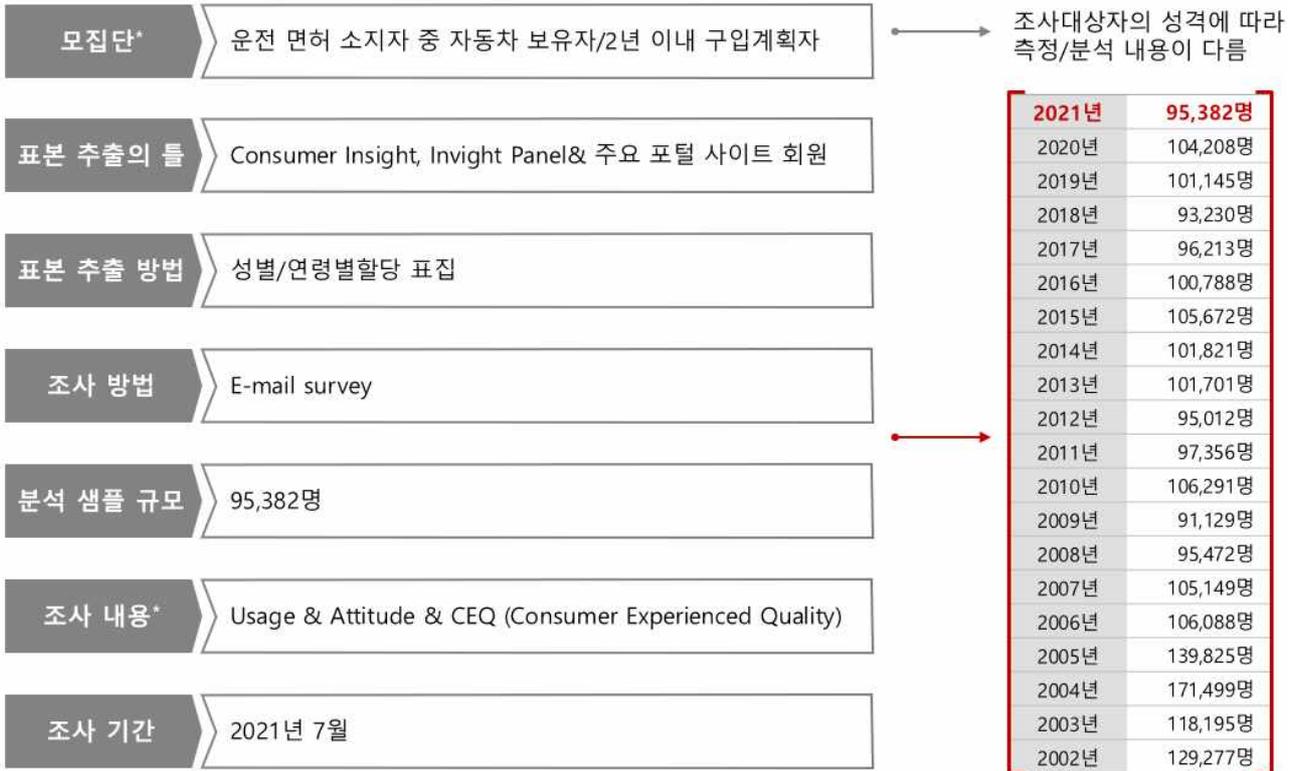
ADAS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 주는 진화된 기술로서 완전자율주행차로 나아가는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. 기술 진전에 따라 보급은 상당히 이뤄진 데 비해 만족도는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. 사용자가 기대한 만큼의 효익을 주지 못 한다고 볼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**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최근에는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

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의 제21차 조사(2021년 7월 실시)로부터 나온 것입니다.

◆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 개요

「컨슈머인사이트」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(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)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.

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For-more-Information

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이사

sammy.park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61